

호랑이 몸 풀렸는데... 그라운드는 아직 춥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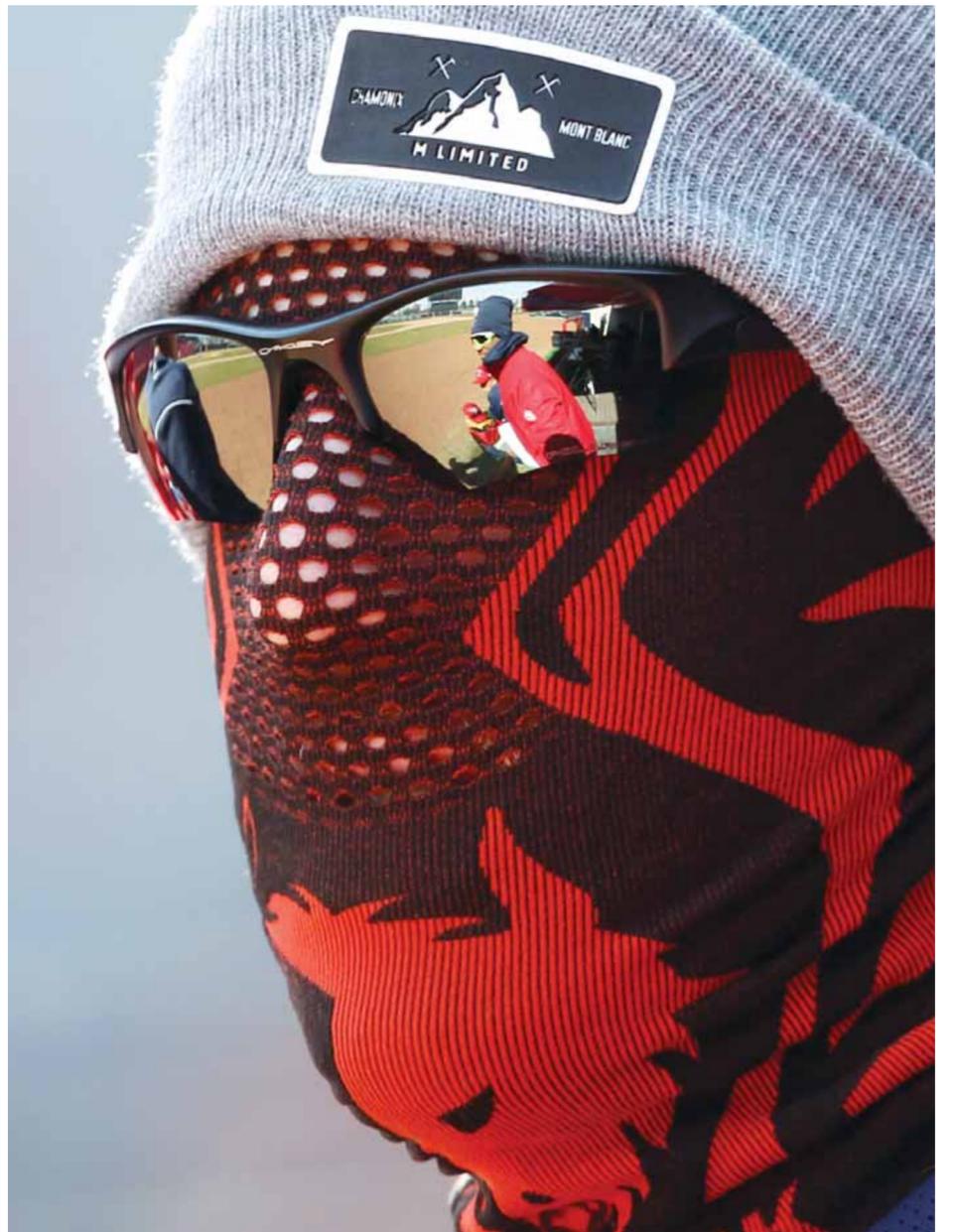
KIA, SK와 시범경기 3-4...6회 콜드게임 패

임준혁 4이닝 1실점 "빠른 볼로 승부하겠다"

‘꽃샘 추위’에 그라운드가 멈췄다. KIA 타이거즈가 10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시범경기에서 3-4, 6회 콜드게임 패를 기록했다. 경기장 체감 온도가 1.5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6회 말을 끝으로 경기가 종료됐다. 전날 LG전에서 1안타로 공풍 열어붙었던 타격이 기지개를 켜다. 1회말 1사에서 윤완주가 SK 선발 김광현을 상대로 좌전 안타를 때린 뒤 도루까지 더해 공격을 열었다. 2회말에는 후속 타 박보배를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좌중간을 가르는 이흥구의 2루타도 나왔다. 0-1로 뒤진 3회말 SK의 바뀐 투수 조한욱을 상대로 득점에 성공했다. 윤정우의 좌익수 플라이를 처리하던 SK 조동화가 햇빛에 공을 놓치면서 1사 2루가 됐다. 윤완주가 삼진으로 물러섰지만 김다원이 외

야 멀리 공을 보냈다. 홈런성 타구는 강한 바람에 막혀 좌측 펜스를 맞고 떨어졌지만 그사이 1루에 있던 윤정우가 홈에 들어왔다. 이어 나지완의 2루수 앞 땅볼 때 송구 실책이 나오면서 김다원의 대주자로 들어갔던 김호영이 홈에 들어왔다. 4회 공격에서는 3개의 볼넷과 윤정우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보냈다. 6회까지 기록된 KIA의 안타는 6개, 9개의 타살진도 남았지만 불안했던 공격과 수비가 안정을 찾은 모습이었다. 마운드에서는 임준혁이 노련하고 과감한 피칭으로 ‘5선발 지키기’에 나섰다. 선발로 출격한 임준혁이 삼자범퇴로 1회를 출발했다. 2회 3개의 안타로 1점을 내줬지만 2사 1:3루에서 조성모를 견제사로 잡아내면서 한숨을 돌렸다. 3회를 2루 땅볼과 타살진 두 개로 처리한 임준혁은 4회 2사에서 중전안타에 이어 도루를 허용

했지만 좌익수 플라이로 세 개의 아웃카운트를 채웠다. 4이닝 4피안타 타살진 1실점. 직구 최고 스피드가 139km에 머물렀지만 61개의 공 중 48개를 스트라이크존에 꽂아넣는 공격적인 피칭으로 첫 등판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임준혁은 “지난 오키나와 연습경기 때보다 투구 밸런스가 손에 공이 굽히는 느낌이 더 좋았다. 쌀쌀한 날씨 탓에 몸이 조금은 경직됐지만 전체적으로 투구내용에 대해서 만족한다”며 “캠프 때부터 이대진 코치님이 빠른 승부를 주문하셨는데 유리한 볼카운트에서 유인구보다 빠른 볼 위주로 공격적인 피칭을 했다. 시범경기에서 두 번 정도 더 등판할 것 같다. 구속을 더 끌어올려야겠다. 지난해보다는 올 시즌 빠른 볼 승부를 더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기주도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시범경기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기주는 5회 10개의 공으로 2K 삼자범퇴를 만들었지만, 6회 제구 난조를 보이며 2이닝 3피안타 2사구 2타살진 2실점으로 첫 등판을 끝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크 “추위요” 10일 오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6 타이거뱅크 KBO 리그’ 프로야구 시범경기 KIA와 SK의 경기에서 KIA 지크가 추위 때문에 바라클라바를 얼굴에 쓰고 경기를 바라보고 있다. 지크의 고글엔 헥터가 비춰지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18.5세 ‘꼬꼬마 배터리’ 떴다

KIA 투수 김현준·포수 신범수 LG전 2이닝 무실점 합작

평균나이 18.5세의 ‘꼬꼬마 배터리’가 떴다. KIA 타이거즈의 원조 ‘꼬꼬마 콤비’는 김선빈과 안치홍이다. 2009년 고졸 신인 안치홍과 고졸 2년차 김선빈이 키스톤 콤비로 호흡을 맞추면서 ‘꼬꼬마 키스톤’이라는 애칭이 생겼다. 두 사람의 평균 나이는 19.5세였다. 이번에는 18.5세의 ‘꼬꼬마 배터리’다. 1998년 1월생인 포수 신범수와 1997년 6월생 투수 김현준, 두 루키가 그 주인공이다. 각각 오키나와와 대만에서 스프링캠프를 치렀던 신범수와 김현준은 지난 9일 LG와의 시범경기를 통해서 배터리로 처음 호흡을 맞췄다. 오버 페이스를 막기 위해 신인 투수들을 퓨처스 캠프에서 차분하게 준비하도록 하면서, 투수 김현준은 대만에서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다. 그리고 캠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김현준은 시범경기 선수단에 이름을 올렸다. 9일 첫 등판에서도 2이닝을 1볼넷 2타살진 무실점으로 막으며 캠프 기세를 이어가는 데 성공했다. 씩씩하게 공을 던진 김현준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다. 안방에서 자신의 공을 받아준 사람이 바로 친구 신범수였다. 김현준은 “이대진 코치님께서 던지고 싶은 대로 던지라고 하셔서 걱정을 했는데 보니까 포수가 범수였다.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었다”며 “그때도 긴장은 돼서 처음에는 범수 밖에 보이지 않았다. 8회 끝나고 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날도 추우니까 빨리빨리 승부를 하자고 했다. 빠른 템포로 집중력 있게 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좋았다”고 활짝 웃었다. 신범수도 “지난해에는 내가 시범경기에 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못했다. 시범경기 명단에 들어서 정말 기



KIA 타이거즈의 ‘꼬꼬마 배터리’로 통하는 고졸 신인 신범수(왼쪽)와 김현준이 덕아웃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분이 좋았다. 긴장을 안 할 줄 알았는데 긴장이 많이 됐다”면서 “처음에는 정신이 없었는데 9회가 되니까 어느 구질이 좋은지 등도 보이고 여유가 생겼다. 친구와 첫 경기를 잘 치러서 좋다”고 밝혔다. 친구와 함께라서 편안하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꼬꼬마 배터리’. 지금은 호흡이 적적 맞는 둘도 없는 동료지만 지난해까지는 냉정하게 승부를 펼치던 라이벌이다. 신범수는 ‘캠핑’으로 동성고를 이끌었고, 김현준은 광주일고 에이스로 활약을 하면서 둘은 라이벌 팀의 라이벌이었다. 모교의 승리를 목표로 신범수를 막기 위해, 김현준에게 안타를 때려내기 위해 경쟁을 하던 두 사람은 지금은 서로 의지하면서 더 큰 선수로 성장하는 같은 꿈을 꾸고 있다. 신범수는 “이런 기회를 주신 감독님께 정말 감사하다. 아직도 TV에서 보던

선배님들과 야구를 하고,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게 신기하다. 중학교 때 볼보이로 왔던 팀에서 야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영광이다”며 “아직 선배님들과 많은 차이가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선배님들을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다. 열심히 근성있는 모습으로 시범경기를 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현준은 “고등학교 성적이 안 좋아서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했다. 대만에서 오키나와에서 친구들과 경기하는 것을 보면서 시범경기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첫 경기 잘해서 기분이 좋다. 직구 제구가 잘 안 되기도 하는 등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지금처럼 씩씩하게 해서 개막전 엔트리에 들고 싶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



21번의 인내

벽 쇼월터 감독 “김현수 잘해야 한다”

‘피겨요정’ 유영 ‘컵 오브 티롤’ 쇼트 1위

‘피겨요정’ 유영(12·문원초)이 자신의 두 번째 국제대회인 ‘컵 오브 티롤 2016’ 쇼트프로그램에서 1위에 올랐다. 유영은 10일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에서 열린 대회 어드밴스드 노비스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기술점수(TES) 28.84점으로 예술점수(PCS) 17.88점을 합쳐 총점 46.72점으로 1위로 나섰다. 2위를 차지한 마리나 피레다(이탈리아·39.33점)를 7.39점이나 앞선 점수다. 만 13세 이하에서 노비스 부문에 나선 유영은 첫 점프 과제인 트리플 러츠-더블 투투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깨끗하게

성공했고, 이어진 체인진 콤비네이션 스피너 레벨 3으로 처리했다. 또 트리플 플립과 더블 악셀에서도 가산점을 쟁긴 유영은 레이백 스피너와 스텝시퀀스를 모두 마무리했다. 시니어 및 주니어 부문은 쇼트프로그램에서 7개 연기 과제를 수행해야 하지만 노비스 부문은 연기 과제가 6개다. 지난 1월 제70회 전국 남녀 피겨 종합선수권대회 여자 싱글에서 역대 최연소 우승을 차지한 유영은 프리스케이팅을 통해 자신의 첫 국제대회 우승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유영은 지난해 8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15 아시아 트로피 어드밴스드 노비스 부문에 출전, 첫 국제 대회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바 있다. /연합뉴스

“김현수에게 계속 기회를 줄 것이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거다.” 김현수(28·볼티모어 오리올스)의 힘겨운 시간은 계속된다. 김현수는 10일(이하 한국 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브라이트 하우스 필드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필라델피아 필리스전에 5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시범경기 7경기에서 21번 타석에 등장한 김현수는 안타는 물론이며 볼넷까지 한 번도 얻지 못했다. 21타수 무안타이며 20타수 이상 소화한 선수 중 유일하게 안타가 없다.

벽 쇼월터 감독은 그동안 “김현수가 곧 안타를 칠 것이다. 지금은 적응하는 단계”라고 두둔했다. 그렇지만 김현수가 10일 경기까지 무안타에 그치지 않자 달라졌다. 쇼월터 감독은 볼티모어 지역지 ‘볼티모어 선’과 가진 인터뷰에서 김현수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줄 것이라면서 “만약(시범경기) 끝나는 시점에서 문제가 있다면 조정을 할 것이다. 잘해야만 그는 계속해서(북쪽에서) 뛸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를 진행한 에두아르두 엔시나 기

자는 북쪽(north)이라는 표현을 썼다. 볼티모어 산하 트리플A 구단은 노퍽 타이즈다. 방위상으로 볼티모어가 노퍽보다 북쪽에 있다. 만약 김현수가 시범경기에서 감을 되찾지 못하면 마이너리그에서 적응할 시간을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쇼월터 감독은 “김현수가 계속해서 안타를 치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일지 안다. 그는 지금 압박감에 시달린다”며 “빅리그에 와서 하나부터 열까지 달라졌을 것”이라고 김현수의 현재 상태를 설명했다. /연합뉴스